

정상 국민 방중 계기, 산업부·코트라 공동 중국시장 비즈니스 지원 활동 전개

- 비즈니스 상담회·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한류 소비재 쇼케이스 개최 -
- 현지 호응 높은 K-소비재 중심 교류 확대로 4,400만 달러 실계약 성과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코트라(사장 강경성)는 1월 6일(화) 중국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K-소비재의 중국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활동은 우리나라 정상이 9년 만에 국민 방중한 것을 계기로, 무역·투자 진흥 주무부처(산업통상부)와 주관기관(코트라)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 기업인과 투자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1:1 수출 상담회’,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충실히 준비·운영되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총 24건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금액은 4,411만 달러라고 밝혔다.

먼저, 「수출 상담회」에서는 한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58개사가 참가해 중국 대형 바이어 95개사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고, 알리바바, JD.com, 텐센트 등 중국 대표 유통망 및 콘텐츠 기업이 바이어로 참여해 한국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에서는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K-소비재를 중심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홍보 부스에는 JD.com, 도우인 등 주요 유통망에 입점해 있는 한국의 인기 제품들이 전시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참가 기업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펼쳐졌다. 유명 인플루언서는 2시간 만에 20만 위안

(한화 약 4,000만원) 이상 한국상품 판매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별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했으며,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등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의 투자 담당자들도 다수 참석하여 개별 상담 및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K-푸드, 뷰티, 콘텐츠 등 한국 제품이 품질과 트렌드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유통망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수석전문관	전우표 (044-203-5696)
			사무관	오정훈 (044-203-5693)
	투자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담당자	서기관	김현동 (044-203-4033)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고창범 (044-203-4083)